

GYEONGNAM INVESTMENT
BUSINESS AGENCY



경남
산업·경제이슈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경남경제 영향

경남 산업·경제이슈
CONTENTS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제분석센터

1. 들어가면서	1
2. 미국-이란 전쟁 발발 배경	1
3. 글로벌 경제 영향	2
4. 경남경제 영향	4
5. 시사점 및 대응방안	8

본 자료의 내용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들어가면서

- 2026년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 하면서 전쟁 발발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 위협 제거, 중동 내 긴장 완화라는 명목하에 선제공격
 - 개전 직후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외 주요인사들이 다수 사망하면서 베네수엘라와 같은 단기전이 예상되었으나 이란의 강력한 저항이 이어지며 현재('26.03.30)에도 전쟁은 진행 중
- 전쟁 한 달째를 맞이하며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고조된 상태
 -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국제 유가와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및 원자재 공급망 타격은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확산시키고 있음
- 중동 정세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측면에서도 상당한 파급효과 존재
 -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공급 차질에 따른 비용 증가가 원인이 된 물가압력 상승은 경기회복 국면에 있는 경남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경남의 주요 산업인 방위산업·에너지(원전) 부문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본고에서는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경남 경제영향을 살펴보고 경남지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02 미국-이란 전쟁 발발 배경

- '11년 이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고 이후 미국·이란은 분쟁 중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1년 핵 프로그램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경고
 - 이후 '13년 이란과 UN 상임 이사국이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¹⁾에 합의
 - JCPOA를 통해 이란 핵문제는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18년 이스라엘이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 중' 이라고 주장하며 증거를 공개함에 따라 갈등 재점화
 -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발표 직후 JCPOA 탈퇴를 선언하였고, '21년 이란의회는 JCPOA 안전규정을 상회하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허가하는 법안 통과
 - '25.6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이 핵무기 9개 분량"이라고 발표, 그 직후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이스라엘-이란 사이에 '12일 전쟁' 발발

1)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은 2015년 이란과 P5+1(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이 체결한 핵합의임. 이란이 농축 우라늄 비축량과 핵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對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핵심임

- 이란 내부 혼란에 따른 대대적 반정부 시위 확산, 유혈 진압에 대한 미국의 경고
 - 이란 리알화 가치 급락, 고인플레이션, 이란 주요은행 중 하나인 Ayande 은행 파산 등 심각한 이란 경제 위기와 '25년 12월 28일 대내적 반정부 시위 확산
 - '26.1월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살을 강하게 규탄하며 무력 개입 가능성 언급한 이후 '26년 2월 28일 전쟁 발발

이란 핵무기 개발 관련 주요 사건

시기	주요 내용
2011.11.08	● IAEA, 이란 핵 프로그램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 경고
2013.11.11	● 이란과 IAEA,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가지 조치에 합의
2013.11.24	● 이란과 UN 상임이사국 · 독일(이하 P5+1), 잠정 합의에 도달
2015.07.14	● P5+1과 이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하 JCPOA) 타결 ●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과 IAEA 검증 확대를 조건으로 對이란 제재 해제
2018.04.30	●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기록을 은닉해왔으며 '새롭고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
2018.05.08	● 트럼프 미국 대통령, JCPOA 탈퇴 선언
2021.01.02	● 이란 의회, JCPOA 안전 규정을 상회하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허가하는 법안 통과
2025.06.12	● IAEA 이사회, 이란이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 추정치가 핵무기 약 9개 제조 가능 수준이라고 발표 ● 이란은 판정에 반발하며 신규 농축 시설 건설과 첨단 원심분리기 설치 계획 발표
2025.06.13 ~06.24	● 이스라엘 방위군 및 모사드, 이란 내 핵시설 · 군사시설 등에 대한 대규모 공격 ● 이란도 대대적 반격에 나서면서 '12일 전쟁' 발발
2025.06.22	● 미국, 이란 내 우라늄 농축시설 · 핵시설 · 핵기술센터 폭격 ●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의 핵심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선언
2025.08.28	● 프랑스 · 독일 · 영국,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UN 안보리 제재 복원 절차 착수
2025.09.28	● UN 안보리 對이란 제재 복원, 이란의 해외 자산 동결 등이 시행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Timeline_of_the_nuclear_program_of_Iran 을 재구성

03 글로벌 경제 영향

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및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급등
 - 원유 공급 감소 우려로 국제유가 급등
 - 사상 최악의 원유 공급 감소가 예상되면서 WTI 기준 배럴당 국제유가는 2월말 67.02달러에서 3월 중 최고 98.71달러까지 급등 후 반락했으나 향후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상황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은 1~2차 석유파동과 러-우 전쟁을 합친 것보다 심각한 수준” 이라고 평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공급 영향

관련 사건	당시 세계 원유 생산량	원유 공급 감소량 ¹⁾
1차 석유파동(1971년)	5,100만 배럴	일일 500만 배럴
2차 석유파동(1979년)	5,700만 배럴	일일 500만 배럴
러-우 전쟁(2022년)	10,000만 배럴	일일 300만 배럴
미국-이란 전쟁(2026년)	10,500만 배럴	일일 2,000만 배럴

1) 언론보도를 참고한 추정치
출처: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Bloomberg

-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현지시간 3.19)에 따른 LNG 가격 급등
 - 카타르의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QE)는 주요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피격으로 한국 등과 맺은 장기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공급 일시 중단
 - 카타르 LNG의 80%는 아시아 수출용이며, '25년 연간 기준 경남 카타르 수입의 98%가 LNG로 의존 비중은 높은 편
 - LNG 아시아 거래 기준 가격인 JKM(Japan-Korea Marker)는 2월말 10.77달러에서 3월 중 최고 22.41달러로 2배 이상 급등
- LNG(액화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외에도 각종 원자재 수급 불안
 - 걸프지역은 원유·LNG 외에 다양한 원자재의 핵심 공급지 역할을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 차단으로 인해 관련 산업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됨
 - 특히, 농업용 비료 원자재 공급이 급감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시 내년 하반기에 농산물에 의한 2차 물가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걸프지역 주요 원자재 및 연관 품목

품목명	걸프지역 점유율	연관 품목
요소	약 45%	농업용 비료, 차량용 요소수, 산업용 수지(접착제) 등
유황	약 45%	농업용 비료, 황산(구리·니켈 등 추출, 반도체 제조, 2차 전지 제조 등), 차량용 타이어, 종이 펄프 등
헬륨	약 33%	반도체, MRI 냉매, 기타 항공우주 산업 등
암모니아	약 25%	농업용 비료, 화약 및 폭약, 냉매 및 세척제 액화 유기 수소 운반체(LOHC) 등
나프타	약 25%	거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
메탄올	약 15%	초산(식품 포장재 등), LCD 디스플레이, 특수 플라스틱 등
알루미늄	약 10%	자동차 차체 및 부품, 항공기, 건축자재 등

출처: Bloomberg 뉴스 외 각종 외신보도 종합

나.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피해

- 원유·석유화학 시설은 수주~수개월, LNG 시설은 최대 3~5년의 복구기간 소요 예상
- 걸프지역 9개국의 40여개 시설이 공격받았으며, 일부 시설은 심각한 피해를 입어 정상화에 상당 기간 소요될 전망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시설 손실규모 및 예상 복구기간

국가	시설명(품목)	손실규모	예상 복구기간
카타르	Ras Laffan LNG 트레인 (LNG)	연간 1,280만 톤	3~5년
사우디	SAMREF 정유시설 (나프타)	일일 40만 배럴	불명
쿠웨이트	Mina Al-Ahmadi 정유시설 (나프타)	일일 73만 배럴	수주~수개월
바레인	Bapco 정유시설 (나프타)	일일 40만 배럴	수주~수개월
아랍 에미리트	Fujairah 석유터미널 (원유)	일일 150만 배럴	불명
이란	South Pars 가스전 (LNG)	일일 1억 입방미터	3~5년
이라크	Rumaila 유전 (원유)	일일 150만 배럴	수주~수개월
오만	Duqm, Salalah 항만 (원유 등)	수출입 항구	수주~수개월
이스라엘	Haifa 정유시설 (나프타)	일일 20만 배럴	수주

출처: Bloomberg 뉴스 외 각종 외신보도 종합

04 경남경제 영향

- 미국-이란 전쟁이 경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경남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물가 상승 등 하방요인과 주력 방위산업 및 원자력 산업의 수주 증가에 따른 상방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원유·천연가스 공급 차질에 따른 영향과 대중동 수출입, 원전 수요 등 부정·긍정요인을 분석하여 경남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가. 공급 차질 및 원가 상승 가능성

- 원유·천연가스의 경남 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지역산업연관표²⁾ 활용
- 원유·천연가스 품목 연관 품목을 기준으로 투입계수를 산출한 결과 ‘윤활유 및 기타석유정제품’이 0.25, ‘기초유기화학물질’ 0.11, ‘도로운송서비스’ 0.11 순으로 높게 나타남

경남지역 원유·천연가스 및 연관품목 투입계수¹⁾

품목명	직접투입	1차 가공품	2차 가공품	합계
윤활유 및 기타석유정제품	0.13	0.11	0.01	0.25
기초유기화학물질	0.02	0.06	0.03	0.11
도로운송서비스	0.00	0.10	0.01	0.11
항공운송서비스	0.00	0.09	0.01	0.10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0.00	0.07	0.02	0.09
화학섬유	0.00	0.04	0.03	0.07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0.00	0.04	0.02	0.06
수산물	0.00	0.05	0.00	0.05
기초무기화학물질	0.00	0.03	0.02	0.05
시멘트	0.00	0.01	0.03	0.04

1) 해당 품목 1단위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원유·천연가스 및 연관품목
출처: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2020년 기준)

2) 해당 분석은 2020년 기준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에 기초한 것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일부 시차가 존재함에 유의

- 다만, 투입계수가 높은 제품·서비스는 경남 지역내 비중이 높지 않아 직접 영향은 제한적

경남지역 민감 제품 및 서비스 총산출액 비중¹⁾

품목명	금액(백만원)	비중(%)
지역내총산출	272,393,629	100.00
유탄유 및 기타석유정제품	329,912	0.12
기초유기화학물질	27,112	0.01
도로운송서비스	2,288,593	0.84
항공운송서비스	7,311	0.00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623,808	0.23
화학섬유	38,273	0.01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608,485	0.22
수산물	1,226,125	0.45
기초무기화학물질	313,536	0.12
시멘트	12,658	0.00

출처: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2020년 기준)

- 경남 주요 제품·서비스의 투입계수는 높지 않으나, 지역내총산출 전체의 투입계수는 3.29로 나타남
 - 전 부문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플라스틱의 원가 상승이 지역 경제 전반의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경남지역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원유 연관제품 투입계수¹⁾

품목명	금액(백만원)	투입계수 합계
지역내총산출	272,393,629	3.29
선박	15,755,372	0.01
자동차 부품	13,433,348	0.00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11,959,726	0.01
의료 및 보건	9,550,152	0.01
음식점 및 주점	8,349,256	0.01
가정용 전기기기	8,259,064	0.00
구조용 금속제품 및 탱크	8,235,643	0.01
산업용 장비 수리	7,840,747	0.01
교육서비스	7,508,781	0.01
열간압연강재	4,607,803	0.02

1) 해당 품목 1단위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원유·천연가스 및 연관품목(2차 가공품까지)
 출처: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2020년 기준)

나. 對중동 수출입에 대한 영향

- 경남의 對중동 수출입은 시기에 따라 변동성이 있으며, 수출 비중은 미국·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
- 對중동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쟁 장기화시 중동 내 수출기업의 수주 애로 우려도 존재

경남지역 對중동 수출입액 및 비중

기간	수출(백만달러, %)	수입(백만달러, %)
'26.1~2월	477 (7.1%)	156 (4.1%)
'25년	2,852 (5.9%)	671 (2.8%)
'24년	2,980 (6.4%)	2,202 (9.1%)
'23년	2,146 (5.1%)	2,861 (11.0%)
'22년	1,509 (4.1%)	2,886 (9.3%)

출처: 한국무역협회

- 경남의 對중동 수출 비중은 사우디·아랍 에미리트·카타르·이집트 순
 - '22~'26.2월 4개국 수출 누계는 8,132백만달러로 같은 기간 對중동 전체 수출액인 9,964백만달러의 82% 차지
 - 4개국 주요 수출 품목은 일반기계(3,578백만달러), 무기 및 총포탄(1,424백만달러) 순
- 경남의 對중동 수입은 카타르·오만에서 천연가스 비중이 높음
 - '22~'26.2월 2개국 수입 누계는 7,974백만달러로 같은 기간 對중동 전체 수입액인 8,776백만달러의 91% 수준
- 경남 방산 분야(천궁-2) 지대공 유도탄 수요 증가에 따른 방위산업 업황 개선
 - 미국-이란 전쟁에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천궁-2가 최초로 실전 투입
 - 미사일 방어 체계의 대표격인 패트리엇 대비 저렴한 가격이 장점(포대 기준 1/3, 미사일 기준 1/10 수준)이며, 이번 미국-이란 전쟁에서 우수한 실전 성능 입증
 - 아랍 에미리트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THAAD·천궁-2·패트리엇 등을 포함한 전체 방공망의 요격 성공률은 90% 이상
 - 군사 분야 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회의원은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천궁-2 2개 포대가 60여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고 요격 성공률은 96%로 나타났다”, “특히 순항미사일 요격성공률은 100%를 기록했다”고 밝힘(문화일보 2026.3.5.)
 - '26.3.8일, 아랍 에미리트가 수송기를 한국으로 보내 1개 포대 분량 30여발의 유도탄 수령
 - 아랍 에미리트의 방공망을 구성하는 대공 미사일 중 미국의 THAAD·패트리엇는 재고가 소진되어 즉시 공급이 가능한 천궁-2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임
 - 아랍 에미리트는 당초 천궁-2 10개 포대를 계약했으나, 현재 2개 포대만 인도된 상태
 -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가 각각 천궁-2 10개 포대, 8개 포대를 계약했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음

-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카타르가 이번 3월에 천궁-2 도입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짐
- 중동지역 외에도 루마니아·말레이시아·베트남이 방공 체계로 천궁-2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이번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천궁-2 도입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위산업의 핵심 기지인 경남에 긍정적인 파급효과 기대
 - 천궁-2 핵심 공급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가 경남 창원시에 소재하며, 그 외 방위산업 전후방 연관산업이 밀집되어 있음

다. 글로벌 원전 수요 변화

- 글로벌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용 상승에 따라 대체 에너지인 원전 수요 증가 예상
 - 국제에너지 기구(IEA)에 의하면, 2025년 기준 글로벌 전력 공급에서 LNG의 비중은 21.3%
 - 미국-이란 전쟁 과정에서 글로벌 LNG 공급능력 급감
 - 카타르 및 이란의 LNG 시설 파괴로 최소 3~5년간 글로벌 LNG 공급능력은 전쟁 전에 비해 5~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이로 인해, 글로벌 LNG 발전 단가는 최소 50%~100% 가량 상승할 가능성 높음
 - 2025년 기준 LNG 발전단가는 국가별 에너지 수급상황에 따라 MWh당 60\$~95\$ 수준
 - 2022년 러-우 전쟁 당시 유럽의 LNG 발전 단가가 최대 50% 상승한 바 있음

전세계 연료별 전력 공급량 및 기존 전망

(단위 : TWh)	2023	2024	2025	2030(전망)
원자력	2,734	2,817	2,850	3,279
석탄	10,637	10,788	10,760	10,284
천연가스	6,631	6,777	6,805	7,731
기타 비재생	899	866	852	521
신재생	8,993	9,858	10,734	16,059
합계	29,895	31,106	32,001	37,875

출처: IEA, Electricity 2026 Analysis

- LNG 발전은 석탄·원자력과 함께 전력공급의 핵심을 담당하는 전원으로 알려져 있음
 - 최근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그 특성상 공급이 일정하지 않아 전력의 과소·과대공급으로 인한 전력망 전반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이에 따라 단순히 전력공급량이 아니라 계통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LNG 공급량 감소로 인해 '제어 가능한' 전원으로서는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된 상황
-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탄소세와 맞물려 석탄 화력이 점차 퇴출되는 추이를 감안하면 저탄소 전원인 원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전쟁 장기화시 전쟁 지역 인근의 플랜트·건설·기계 수출 프로젝트의 납기 지연 및 신규 수주 보류 가능성도 있음

05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부정)**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피해 확산
 - 2026년 3월 27일 기준 WTI(서부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9.64달러, 브렌트유, 두바이유 모두 100달러를 상회하였고, 국내 유가 역시 급등
 - 정부는 유가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과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3월 13일부터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
 - 국제유가 상승은 운송비·물류비·제조원가 상승을 통해 물가 상승의 형태로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음
 -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따라 안전 자산인 달러 수요 폭증으로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상향돌파
 - 과거에는 환율상승(원화약세)가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관계가 매우 약해진 상황
 - 환율 상승에 의한 수출 증가 효과보다는 원가 상승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영향으로 나프타(납사) 가격이 지난달에 비해 72% 상승하고,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연쇄적인 영향이 확대 되는 중
 - 해운 분야에서도 1차적으로 보험료·운임 상승이 일어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통과 대기중인 선박이 누적되고 있어 해협 통행이 재개되더라도 해운 정상화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
- **(긍정)** 전쟁으로 해외 수요가 높아진 방위·조선·원전 등 주력산업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경남은 국내 국가 지정 방산업체의 약 32%가 집적된 대한민국 방산 거점으로 자주포, 전차, 전투기 등 핵심 무기를 생산 중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가 잘 구축된 지역
 - 미국-이란 전쟁 과정에서 안보 투자에 대한 중요성 부각됨에 따라 방위산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또한 안보를 위한 잠수함 등 조선 산업 수요도 동시 증가 예상
 - LNG(액화천연가스)의 대체 에너지 측면에서 원전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 높음
- **(대응 방안)** 물가상승, 물류 비용 증가, 고환율 등 기업애로 사항에 대한 세부 지원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경남 주력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단기 : 현 시점 ~ 전쟁 종료 후 1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저지 및 지역 기업의 단기적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 추진
 - 사례: 경남도-투자경제진흥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안정자금 100억원 기 투입('26.3.23)
 - **(장기)** 방위·조선·원전 등 도내 주력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 및 투자유치 확대 등 견고한 주력산업 생태계 조성

참고자료

산업연구원, “미국-이란 충돌과 호르무즈 리스크” (2026.03.19.)

유복근, 정영호, “산업연관표·파이썬을 활용한 경제구조와 산업연관효과 분석”. 박영사, (2024.05.30.)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

문화일보 “유용원 UAE 수출 천궁-Ⅱ 이란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급에 60여발 96% 압도적 명중률” (2026. 3.5)

Bloomberg, 뉴스 및 데이터베이스

IEA, “Electricity 2026 Analysis”. (2026.02.06.)

Atlantic Council, "The Strait of Hormuz crisis will ripple across plastics and food supply chains". (2026.03.23)

BusinessKorea, "Middle East Conflict Sparks Urea Supply Concerns". (2026.03.23)

CSIS Analysis, "Chokepoint: How the War with Iran Threatens Global Food Security". (2026.03.11)

Deloitte Insights, "Iran and Middle East conflict impacts global economy". (2026.03.18.)

Farmdoc Daily, "Strait of Hormuz Closure and Fertilizer Supply Risks". (2026.03.23.)

IEA, "Oil Market Report - March 2026 Update". (2026.03.12)

The Business Times, "Precious metals, fertilisers: These charts show Asia’s exposure to Middle East trade, disruptions". (2026.03.24.)

Wood Mackenzie, "How the Middle East conflict is affecting metals markets". (2026.03.16.)

https://en.wikipedia.org/wiki/Timeline_of_the_nuclear_program_of_Iran

발행일	2026년 3월 31일
발행인	오재호
편집인	곽소희
집필인	윤종철·박예은
발행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51404)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 본 간행물을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 「경남 산업·경제동향」의 내용 및 편집에 관한 의견과 제안이 있으시면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 경제분석센터 (T.055-230-2805, 281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간행물은 메일링 서비스(<https://www.giba.or.kr>) 신청을 통해서 정기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